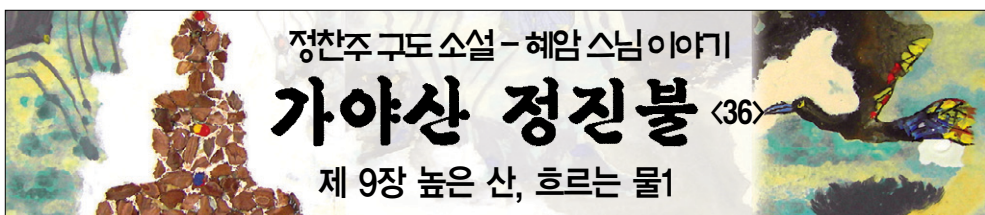


산꽃 웃는 것 새 우짚는 소리에 법문이 다 들어있다



1962년 봄에 비구승과 대처승 양측이 통합종단을 탄생시켰지만 해를 넘기면서 갈등은 더욱더 커졌다. 크고 작은 절을 빼앗긴 대처승들에게는 생존권을 뿌리째 흔드는 문제였으므로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반면에 왜색불교를 청산한다는 정화운동과 불교재건 차원에서 국가의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절을 접수한 비구승단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동산이 조계종 중정을 사임하고 범어사로 내려가자, 1963년도에 전국승려대표자회의 의장이 된 청담은 도선사와 선학원을 오가며 비구승단의 중무를 이끌었다. 절박해진 대처승들과 협상하면서, 한편으로는 비구 승려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오대산 월정사에서 승려특별강습회를 여는 등 활발하게 앞장섰다.

그러나 해암은 이러한 불교정화운동에는 관심이 없었다. 서울로 올라가 승단을 규합하고 정화하는 일보다 산중에 남아 자기정화를 해야만 한국불교가 산다고 주장하는 성철의 영향이 컸다. 성철을 믿고 따르는 법전이나 일타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다 서울로 가지 않고 산중암자에 은거하며 자기 수행에 전념했다.

해암은 통도사 극락암으로 내려가는 길에 선학원에 들렀지만 하루밤도 머무르지 않았다. 불교혁신운동과 역경 불사에 관심이 많은 선학원 이사장 석주가 붙들었지만 해암은 흥미가 없었다.

“해암수좌, 선학원에 남아서 내 일을 좀 도와주오.”
“참선공부만 하는 제가 무슨 일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불교를 현대화시키려면 할 일이 많아요.”

석주는 해암보다 수행 이력이 20여 년 앞섰지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대했다. 시자를 시켜 당시 귀하던 제과점 빵과 과자를 내오게 했다. 그러나 해암은 하루 한 끼 이외에는 간식을 하지 않았으므로 입에 대지 않았다.

“이사장 스님, 무엇이 현대화입니까.”

“불교정화운동은 청담스님이 잘하시고 있고, 내가 해보고 싶은 불교현대화는 운허스님과 함께 팔만대장경을 한글화시키는 불사지요. 또 한 가지 더 든다면 어린 아이 포교가 지금 아주 급해요.”

해암은 곧 선학원을 떠나려고 했다.

“제가 이사장 스님을 도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납자는 한겨울에 피는 한매(寒梅)와 같은 사람이오. 말없이 좌복에 앉아 있다가 해도 향기를 퍼뜨리거든. 그래서 선학원에 남아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오.”

“스님, 송구합니다. 이곳은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머칠 전에 현호수좌가 구산(九山)의 서신을 가지고 와 놓고 갔어. 서신 가운데 이런 게송이 있더구먼.”

청산녹수는 좋은 장엄
새메들은 꽃 숲에서 모음을 연출하네
어리석고 귀먹어 범소식 모르지만
사자후하며 옛길 가길 원하네.
靑山綠水好莊嚴
百鳥花間演妙音
愚聲不識春消息
獅子願行古路深

“노장님께서 구산스님의 게송을 차운(次韻)해 시를 지으셨군요.”

“허허허. 그렇고말고. 오늘은 해암수좌가 한 번 보고 평을 해보게.”

해암은 방바닥에 놓인 경봉의 게송을 읽었다.

유형무형이 모두 화엄법계요
흐르는 물 바람소리 태고의 소릴세
오얏꽃 피고 복사꽃 붉은 방초언덕에
나무꾼 아이의 피리소리 묘하고 그윽하네.
有形無像盡華嚴
流水風聲太古音
李白桃紅芳草岸
樵童歌笛妙清深

해암은 평을 하지 못했다. 대신 옆드려 절을 했다. 그러자 경봉이 큰소리로 말했다.

“됐네. 돌아가 쉬게.”

해암이 보기에 경봉은 틀림없는 도인이었다. 도를 맛들여지게 끌리는 도인이었다. 선방에서는 활을 하고, 법당에서는 쉬는 우리말로 설법하고, 삼소굴 뒷마루에서는 시를 읊조리는 자유인이었다.

그해 해암은 대중들의 가슴을 적신 경봉의 하안거 결제법문을 오래도록 잊지 못했다.

<오늘 우리 선원에 여름 안거 결제법문을 하거나 아무리 천언만답을 하고 팔만사천 경전을 입으로 설교하더라도 말이오 문자이다. 이 도리는 입을 열면 어긋나고, 입을 열지 않으면 잃게 되고, 그렇다고 또 입을 열지도 다물지도 않으면 심란팔천 리나 멀어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도리를 알리고 하여 이 도리를 마음이다 혹은 성리(성리)라 혹은 불성지리다 혹은 한 물건



‘지지부진 진취가 없거든 산에 가서 발을 쪽 뺏고 실컷 울어라...’ 무가보인 자기보장 찾는 수행은 생명을 걸고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러분의 눈에 다 들어갔고, 내가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이 내 눈에 다 들어왔다.

눈이 서로 마주치는 곳에 도가 있다. 이 도리를 알면 눈만 꿈쩍해도 알고 손을 들어도 알고 발을 쏙 내밀어도 알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다. 이러한 경지라야 멋들여지게 법문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아는 이는 이렇지만 모르는 이는 천리만리만큼이나 아득한 것이다. 부시들에서 불이 번쩍하는데, 그 불빛에 바늘귀를 꿰더라도 오히려 둔한 것이다. 그보다 빠르니 그렇다.

지지부진 진취가 없거든 산에 가서 발을 쪽 뺏고 실컷 울어라. 뼈에 사무치는 울음을 울어야 한다. 이 공부는 철저히게 생명을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에서 돈 버는 것도 10여 년간 풍풍우우(風風雨雨)에 피땀 흘려야 가능한데, 하물며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무가보인 자기보장(自己寶藏; 마음부처)을 찾는 수행은 생명을 걸고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저 간단없이 오나가나 앉으나 누우나 일어해져서 전에는 그렇지 않던 것이 그저 밥을 먹을 때에도 들리고 가도 들리고 대소변을 보든지 이야기를 해도 목전에 역력히 드러남은 물론 꿈 가운데서도 일어해져서 화두가 독로해야 한다.

흘러가는 시냇물 가에서 물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대를 베서 통소나 짓대를 만들면 그 소리가 여는 대밭의 대보다 소리가 배나 굵다. 오동나무도 보통 산중에서 자란 것보다 물가에서 물소리를 듣고 자란 것을 베서 거문고나 가야금을 만들면 소리가 배나 굵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도 귀를 지나가면 누구에게나 있는 여래장으로 통하게 되는데, 이 여래장을 통해서 지나가면 언제든지 나오게 된다.

경봉은 하안거 해제 게송을 지어 만행을 떠나는 수좌들에게 적어가게 했다. 해암도 게송을 받아 적어 걸망에 넣었다.

우주가 나의 집 큰 도량이라
지혜의 칼 휘두르자 모두가 청량해
법은 오연 없이 현현한 중에 오묘하고
진리는 공함을 얻어 겁 밖의 향기일세
침침한 산세는 천고에 푸르는데
세상일들은 그저 한 모습일세
비구름 개이고 가을바람 소슬하니
만리 푸른 하늘에 태양이 붉네.
宇宙吾家大道場 慧鋒揮處盡清涼
法無污染玄中妙 理得空虛劫外香
重重山容千古翠 諸般世態一眞光
雲收雨散秋風起 萬里碧天紅日長

해암이 더 머물지 못하고 해인사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극락암 선방 사정 때문이었다. 전국의 수좌들이 서로가 경봉 회상에서 안거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다시 오려면 적어도 1년 정도는 다른 선방에서 보내고 와야 했다.

해암은 해인사 선방에서 겨울을 나고 다음해에는

묘관음사로 가 향곡 회상에서 정진하기로 했다. 향곡은 6.25전쟁 전 불암사 선방에서 몇 마디씩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방부를 들이는 데는 문제가 없을 터였다. 더구나 상원사 선방에서 향곡의 상좌인 진제와 함께 정진한 인연이 있었던 것이다.

<계속>

비구승·대처승 양측 통합종단 갈등 커져

해암은 정화운동보다 ‘자기정화’ 매진

경봉 스님 하안거 결제법문에 크게 감동

해암은 그 자리에서 석주에게 인사하고 서울역으로 나갔다. 석주는 그해 불교청소년회연합회 총재를 맡았고, 훗날 동국역경원 이사장과 한글대장경 후원회 회장을 역임하며 자신의 서원대로 뜻을 폈다. 젊은 날에는 참선납자로 수행을 시작해서 증견 스님이 된 이후로는 불교혁신운동과 불교 대중화로 회향한 셈이었다.

해암은 경부선 물금역에서 내렸다. 그런 뒤 버스를 타고 양산 통도사 초입인 신평에서 내렸다. 거기서도 경봉이 주석한 극락암까지는 죽히 십리가 넘는 길이였다. 통도사 산내암자인 인양암을 지나치는 길에 봄비가 내렸다. 해암은 암자에 들러 가랑비를 피하지 않고 산길을 걸었다. 경봉을 뵈고 싶은 마음이 급했다.

봄비는 극락암 입구쯤에서 오락가락했다. 그러나 해암의 장삼과 걸망은 물에 빠졌다가 나온 것처럼 흠뻑 젖어 있었다. 해암은 원주실로 가 현 장삼을 하나 빌려 입고는 경봉이 있는 삼소굴로 갔다.

삼소굴에는 몇몇 스님이 먼저와 경봉과 다담을 나누고 있었다. 경봉은 해암의 절을 받고난 뒤 하던 얘기를 마저 했다.

이다. 라고 하지만 다만 대명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그림을 잘 그리는 이가 그려낼 수도 없고, 소진(蘇秦) 장의(張儀)와 같은 구변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 오고 가고 앉고 눕고 말하고 고요하고 시끄러운 일상생활에서 항상 이 자리를 쓰고 있고, 화화초초(花花草草) 두두물물(頭頭物物)에도 이 자리가 온통 그대로인 것을 따로 찾고 있다. 오늘 묵묵히 앉아 있다가 주장자를 들어 대중에게 보이고 법상을 했는데 눈으로 주장자를 역력히 봤고, 귀로 법상 치는 소리를 역력히 들었다.

역력히 보고 들은 여기서 알아야지 그밖에 따로 현묘한 것을 보고 듣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주장자를 들어 보인 뒤 법상을 치고는 ‘산은 은은하고 물은 잔잔히 흐르는데 산꽃은 웃고 들새는 노래해 지금 저 나무 위에 새가 흐르르 흐르르 하네.’ 라고 읊조렸다.

산꽃 웃는 것과 새 우짚는 소리에 법문이 다 들어 있다. 안개는 새벽하늘에 피어오르고 비는 청산을 지나가니 모든 만물이 비로자나부처님이요, 온갖 것이 그대로 연화장세계로다. 법상을 치고 역! 하고 할을 했을 때, 눈 꿈쩍하는 사이에 법문을 알아들어야 한다. 여러분이 나를 볼 때 법상과 내 몸의 전체가 여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 대중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신 으로서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일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안거 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 결 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제
매년 설날, 중앙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
감원 벽산 원각 |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